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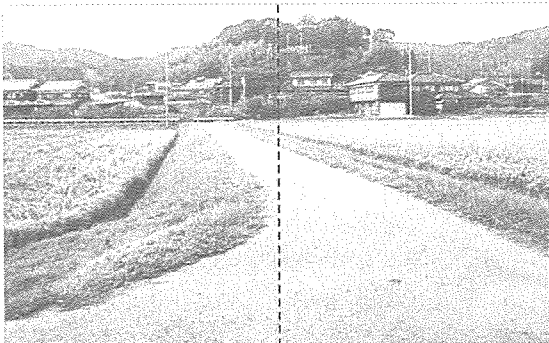
벼 모 밟기 로울러로 줄기를 굵고 강하게

나가사와 다케

단련한 모를 심은 논은 태풍에도 끄덕 없었다.

작년 8~9월의 대형태풍은 추고쿠(中國)지방에 상륙하여 우리들 주변에도 넘어진 벼를 매우 많이 볼 수 있었다. 그러나 우리들「무농약연구회」(회원 약 50명)의 벼는 세 차례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전혀 쓰러지지 않았고 그 차이는 확실하였다. 작년 가을에는 전국 각 지로부터 방문객들이 시찰을 하러 왔다.

우리들의 공통된 기술의 하나인 로울러식 모 밟기 기구를 사용한 튼튼한 모 만들기를 소개하고자 한다. 이 기술은 어린모(유소모)를 위에서부터 눌러서 단련시킴으로써 뿌리내림이 촉진되고, 뿌리도 많아지며, 줄기가 굵은 모를 만들 수 있다. 이는 포장에서의 활착을 좋게 하고 뿌리 뽑음이 좋기 때문에 쓰러짐 방지에 효과적이다. 또한 줄기도 굵고 튼튼하게 자란다. 그 효과는 사진을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다.



(좌) 관행재배의 논, 도복이 진전되어 있음.
(우) 로울러로 모를 단련시킨 벼의 논. 전혀 쓰러지지 않았음.



모를 밟는 로울러 굴리기

최초는 1.5엽기에 6Kg정도의 무게로

각 지로부터 시찰하러 오는 방문객들 중 여성으로부터의 질문이 2/3이다. 모두가 열성적이다. 질문 내용은 약한 새로운 싹을 꺾어도 정말로 모에는 이상이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 압도적이다.

로울러는 본체의 가운데에 물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특징으로 물의 양에 의해 6~16Kg 까지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.

30일 모를 만들 경우는 첫 번째는 1.5엽, 초장 25mm일 때 빈 로울러를 굴린다. 처음부터 20Kg 이상의 부하를 주면 줄기 장해를 일으키므로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.

이후는 대개 5일마다 0.5엽이 발생할 때 마다 1회를 표준으로 완성까지 5회 정도 점점 무겁게 한 로울러를 굴러가도록 한다.

최후에는 물을 가득채운다.

로울러는 1회마다 다른 반대 방향으로 굴리도록 한다. 더욱 자세한 시행방법은 연구회에서 지도한다.

출처 : 일본 現代農業 4月號
번역 : 본 협회 사무처